(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地表調査報告書 第72輯

진주시 금산면 도시계획시설(중로 2-36호선) 개설공사구간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7. 4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目　　次

Ⅰ. 조사개요 3

Ⅱ. 진주시의 환경 4

1. 진주시의 자연・인문환경 4

2. 진주시의 역사적 환경 5

1) 진주시 역사 개요 5

2) 진주시 역사관련 문헌자료 8

3) 진주시 지역의 유적과 문화 11

Ⅲ. 조사내용 13

1. 조사대상지역 개관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13

1) 조사대상지역(금산면) 개관 13

2)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15

2. 고고・역사분야의 조사 17

3. 사회・민속 및 지명유래 분야의 조사 17

1) 진주시 민속과 문화행사 17

2) 조사지역의 지명유래 19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9

참고문헌 21

도　　판 2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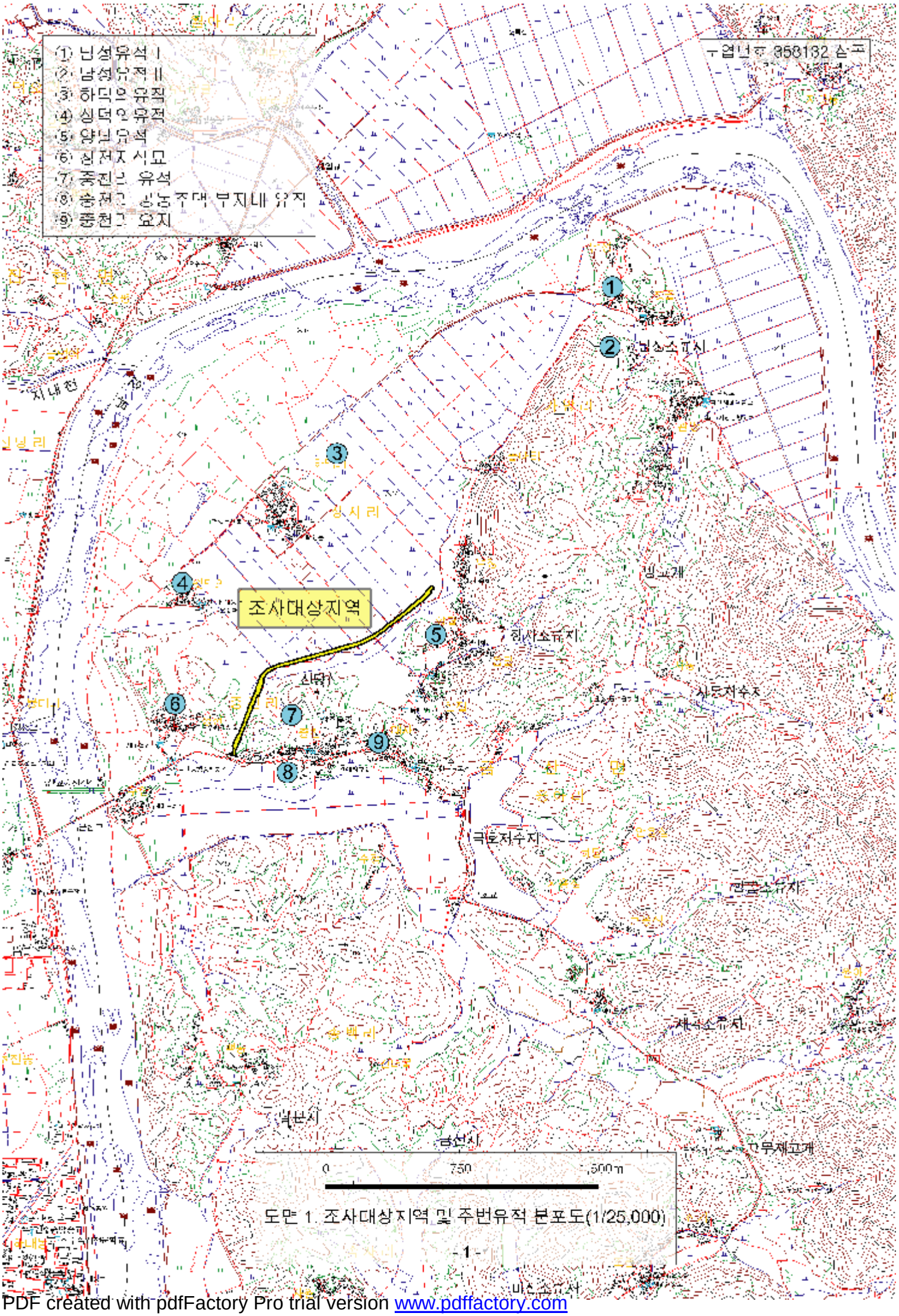
圖 面 目 次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분포도**(1/25,000)**.....**1**
도면 **2.** 조사대상지역 및 시굴조사 대상지역 위치도**(1/5,000)**.....**2**

寫 眞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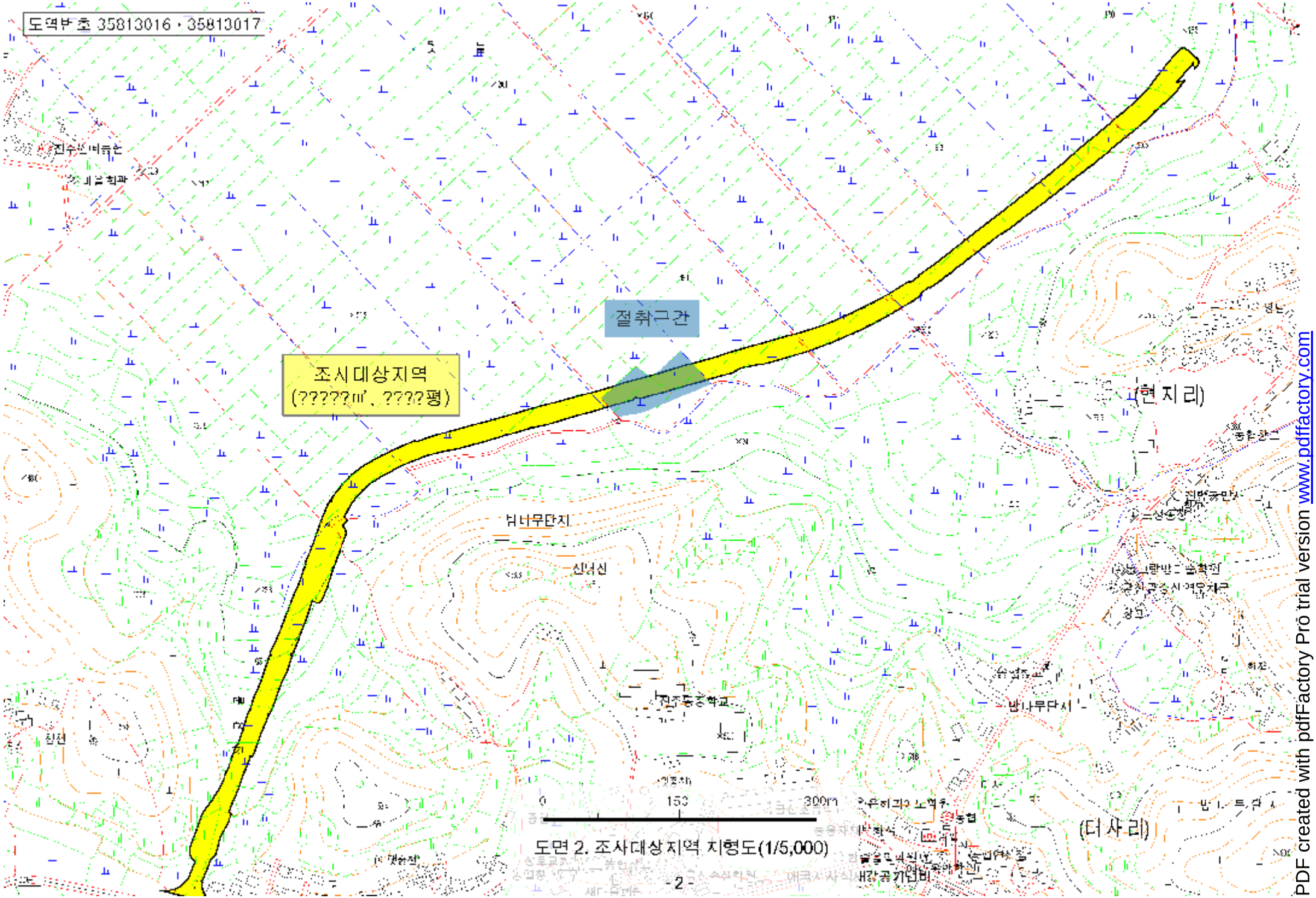
사진 **1.** 조사대상지역 전경**(**북→남**)**.....**25**
사진 **2.** 조사대상지역 부분 전경**(**북→남**)**.....**25**
사진 **3.** 중천유적 전경**(**남→북**)**.....**26**
사진 **4.** 중천리 공동주택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지역**(**북서→남동**)**.....**26**
사진 **5.** 근대분묘**1** 전경**(**남→북**)**.....**27**
사진 **6.** 근대분묘**2** 전경**(**남→북**)**.....**27**
사진 **7.** 조사구역 남서쪽 전경**(**북→남**)**.....**28**
사진 **8.** 조사구역 남서쪽 수습유물.....**28**
사진 **9.** 조사구역 북동쪽 전경**(**남서→북동**)**.....**29**
사진 **10.** 조사구역 북동쪽 수습유물.....**29**
사진 **11.** 절치구간 전경**(**서→동**)**.....**30**
사진 **12.** 절취구간 세부.....**30**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Ⅰ. 조사개요

금번 우리 연구원에서는 (주)랜드플러스씨앤디가 추진중인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55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 2-36호선) 개설공사구간에 대하여 시행자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 74조의2 동법 시행령 제 43조의3 규정에 의거 당 사업구간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의뢰받았다.

본 조사는 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구간내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적 분포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보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대상 지역은 경남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556번지 일원이며, 조사대상면적은 33,371㎡(약 10,095평)이다. 현장조사는 사업구간내 도로구간 및 범면까지 대상으로 주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고문헌조사 및 기존에 보고된 각종 발굴조사보고서와 학술지를 조사하였다. 현장조사는 전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여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지역은 아래와 같다.

■ 조사단 구성
- ◦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 책임조사원 : 임동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 ◦ 조 사 원 : 조상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 ◦ 조사보조원 : 김정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민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총조사기간 : 2007. 04. 10 ~ 05. 10
- ◦ 예비조사 : 7일
- ◦ 현장조사 : 3일
- ◦ 자료분석·정리, 보고서 작성 : 20일

■ 조사지역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556번지 일원

■ 조사면적 : 33,371㎡(약 10,095평)

■ 의 뢰 처 : (주)랜드플러스씨앤디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Ⅱ. 진주시의 환경

1. 진주시의 자연・인문환경

경상남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시는 천년 古都로서 오랜 역사를 간직한 忠節과 敎育・文化・藝術의 고장이다. 전체적인 지형은 동부와 북부지역이 비교적 산세가 험하고 서・남부지역은 구릉지와 평야지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백산맥의 줄기가 남쪽으로 뻗어 내리다 솟은 飛鳳山과 智異山 자락에 접하고 있어 絶景의 산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동맥인 南江이 덕유산과 지리산으로부터 시작되어 서부경남 산간지대의 낮은 계곡을 따라 동서로 흐르면서 시내를 관통함으로써 주변에 양질의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 해발 약 **100~500m** 높이의 낮은 산이 구릉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농경지와 취락은 대부분 이들 계곡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동쪽은 오봉산**(524m)**, 방어산**(530m)** 등 비교적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으며, 북쪽은 비봉산을 비롯하여 집현산**(572m)**, 검무봉**(280m)**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은 망진산**(172m)**, 봉대산**(302m)** 등이 있다. 하천은 시의 중심부를 南江이 동서로 흘러 도시를 남북으로 나누고 있어 자연적으로 강북・강남・강동으로 분리되게 하였으며, 강 주변은 해발 고도 대략 **30m** 내외의 범람원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서부지역은 덕천강을 경계로 하동군과 접하고 있으며, 경호강과 남강으로 이어지는 진양호가 위치한 지역으로, 표고 **200m** 이하의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진주평야는 평거동 河谷平野에서 크게 넓어진다.

지질구조는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慶尙系地層[1]에 해당하는 낙동통 진주층에 속하며, 암석은 연질사암과 혈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식물화석이 비봉산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상의 지형적인 특색을 요약하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첨예한 山峰 대신 圓頂을 이루고 있다는 점. 둘째, 山腹 및 山脚은 완경사를 이루고 있는 야산이라는 점. 셋째, 남강은 전형적인 蛇行川으로 下方浸蝕은 극히 미약하거나 거의 정지되었다는 점. 넷째, 지형윤상으로 보아 만장년기에서 노년기 산지의 형태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점 등이다.[2]

기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해안에 위치하여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기후지역에 속하며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나, 경상남도 서부 내륙지방에 위치한 盆地地形의 영향으로 연교차는 큰 편이며, 산지**[**智異山**]**의 영향으로 인한 大陸性氣候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연간 평균기온이 **13~14**℃ 정도이며, 연교차가 **25.5**℃이다. 강수량의 경우, 약 **1,38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부분 **6~8**월에 내려 하계집중

---

1) 慶尙累層群은 **2**억 **3**천만 년 전부터 **6**천 **3**백만 년 전까지 계속된 中生代의 지층을 대표한다. 중생대 말의 백악기에 쌓인 이 지층은 경상남・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이 지층이 쌓인 퇴적분지를 慶尙盆地라고 부른다.**(**國史編纂委員會,『韓國史**1-**총설』**, 2002)**

2) 晋州市・慶尙大學校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晋州市』**, 200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교통상의 위치를 살펴보면,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경전선 철도와 남해안 고속도로가 동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으로는 대전~통영간 고속국도가 연결되어 있어 문화를 비롯한 상호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남으로는 사천시, 서로는 남해와 하동, 북으로는 산청, 함양, 거창, 김천 등으로 연결되어 말하자면 바다와 육로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전체면적은 **712.62**㎢이며,**(**경상남도 대비 약 **6.8%, 6**번째 크기의 면적이다**)** '**1**읍·**15**면·**21**동'을 관할하고 있고, 세대수는 **116,241**가구에 인구는 **337,241**명이다.**(2006**년 현재 통계자료**)**[3)]

2. 진주시의 역사적 환경

1) 진주시 歷史 槪要

(1) 先史時代부터 三韓時代

진주지역은 온대계절풍의 기후와 높지 않은 구릉지, 강을 중심으로 곳곳에 형성된 충적지 등이 농경생활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원시·고대사회 형성에 있어 중요한 基底로 작용하였다. 많은 선사시대의 유적 중 대표적인 것이 남강유역의 유적이다. 남강유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그 규모에 있어 단일지역으로는 국내 최대의 조사지역이었는데, 이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는 先史·古代의 이 지역 역사를 조명함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를 통해 진주와 인근지역은 역사시대 이전인 舊石器時代부터 新石器·靑銅器를 거쳐 三韓時代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아 온 국내 최대의 유적지임이 확인되었으며, 이 밖에 남성동·이현동·유곡동 등지에서 마제석기와 무문토기 등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친 유물이 다량으로 발견·출토되었다.

그리고 수정봉·옥봉의 산등성이와 상봉동·중안동의 언덕에서 발견된 비교적 큰 고분군은 가야시대 유력한 정치세력의 무덤으로 조사된 바 있다.[4)] 여기에서 출토된 각종 토기와 석기는 우리나라의 신석기문화를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기타 여러 종류의 유구와 유물 등을 통해 청동기시대 각종 竪穴住居址 형태와 규모, 耕作地, 墓地, 環濠 등의 문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5)]

삼한시대로 접어들면, 중국의 사료인『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의 기록에서 진주지역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삼한시대 弁辰 **12**국 중 하

---

3) 진주시 <홈페이지 통계현황(인구)자료> 참조.

4) 이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은 남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발굴보고서들을 참고하면 된다.

5) 慶尙南道·東亞大學校 博物館,『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 **199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나인 '古淳是國'으로 비정되고 있거나, 가야연맹체의 하나인 '古寧伽倻' 지역으로도 추측되고 있다. 한편 삼한시대에 경남에서 전남지역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의 해양세력인 '浦上八國'의 존재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포상팔국의 세력권이 전 남해안까지 뻗쳤다는 기록도 중요하지만, **8**國 중 그 지명이 비정된 **4**國의 위치를 볼 때,[6] 모두 진주지역과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浦上八國과 가야·신라의 대립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7] 인근한 진주지역과 상호간에 교류 내지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馬韓을 비롯한 弁辰韓 삼한의 통폐합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삼국이 고착되는 어느 시기에 백제의 권역에 예속된 것으로 짐작된다.

(2) 三國時代부터 統一新羅時代

문헌에 나타난 진주시와 관련된 기록들을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살펴보면, 처음에는 백제 '居列城' 또는 '居列州'로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 文武王 때 장군 欽純과 天存이 군사를 거느리고 거열성을 공략, 함락시켜 신라의 영토에 편입하여 '居列州'로 만들었으며, 이후로 신라의 영역으로 복속되었다고 한다.[8] 그리고 神文王은**(5**년, **685)** 居列州**(**일명 居陁州**)**를 나누어 '菁州'를 두고 대아찬 福世를 菁州總管으로 하였으며,[9] 景德王은**(16**년, **757),** '**9**州 **5**小京'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기존의 청주를 '康州'라 개칭하고, **1**개 州와 **11**개 郡, **27**縣을 관할하게 하였다.[10] 元聖王 **1**년**(785)**에 총관을 도독으로 고쳤으며, 昭聖王 **1**년**(799)**에 강주를 다시 '청주'로 개칭하였다. 憲德王 재위 후반기에 청주를 다시 '康州'로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11] 그리고 통일신라 하대와 후삼국시대에 이르러 고려와 후백제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당시의 진주지역이었던 康州는 왕봉규라는 호족의 독자적인 세력 하에 지배되고 있다가 고려 太祖 **11**년**(928)**에 이르러 후백제의 세력권에 복속된 것으로 보인다.[12]

---

6) '浦上八國'이란 남해안 지방인 지금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에 나뉘어져 있었던 소국가들로 **8**개의 국가 중에서 그 위치가 비정된 곳이 **4**곳이다. 이를 살펴보면 골포국, 칠포국, 고사포국, 사물국으로 지금의 마산만, 진동, 고성, 사천에 각각 해당하고 있다.

7) ①『三國史記』卷二 <新羅本紀>第二 奈解尼師今 十四年條.
十四年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湌利音 將六部兵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②『三國史記』卷四十八 <列傳>第八 勿稽子條.
(상략**)**……後三年 骨浦 柒浦 古史浦 三國人 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하략**).**

8)『三國史記』卷六 <新羅本紀>六 文武王 三年條.
二月 欽純天存領兵 攻取百濟居列城 斬首七百餘級……**(**하략**).**

9)『三國史記』卷八 <新羅本紀>八 神文王 五年條.
(상략**)**……挺居列州 以置菁州 始備九州 以大阿湌福世爲摠管……**(**하략**).**

10)『三國史記』卷九 <新羅本紀>九 景德王 十六年條.

11)『三國史記』卷四十四 <列傳>四 金陽列傳 長慶二年條.

12)『高麗史』卷一 <世家>第一 太祖 十一年 五月 庚申條.
五月 庚申…**(**중략**)**…甄萱潛師襲康州 珍景等還戰敗 死者三百餘人 將軍有文降于萱.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3) 高麗, 朝鮮時代

고려 太祖 때 진주지역은 계속 '康州'로 불리워지다가, 太祖 23년(940)에 康州를 지금의 명칭인 '晋州'로 고쳤으며, 成宗 2년(983)에는 12牧을 설치하면서 그 중 하나인 '晋州牧'으로 하였다. 同王 14년(995), 12牧을 '12州 節度使'로 개편하면서, 전국 10道 중 하나인 '山南道'를 설치하여, 10州 37縣을 소관하게 하였으며, 다른 명칭으로는 '定海軍'으로도 칭하였다. 顯宗 3년(1012)에는 節度使를 폐하고 安撫使를 두었다가, 同王 9년(1018)에 다시 안무사를 없애고, 전국을 '4道護府 8牧 56州郡 28鎭'으로 나누게 되면서, 8牧 중 하나인 '晋州牧'으로 하고 명칭을 '晋康'(당시까지 별호로 晉陽 또는 菁州로 불리웠다)으로 하였다.[13] 睿宗 1년(1106), 嶺南道·嶺東道·山南道를 통합한 '慶尙晋州道'로 하였으며, 明宗 1년(1171)에 '慶尙州道'와 더불어 '晋陜州道'로 분할되어 한 때 경상도 지역을 나누어 통괄하다가, 同王 16년(1186)에 경상주도와 진합주도를 통합, '慶尙州道'라 하였다.(당시 감영은 경상북도 尙州에 두었다) 高宗 21년(1234)부터 약 8년 간 동안은 별호인 '晋陽'으로 불리우며, 당시 실권자였던 최충헌의 아들 최이의 食邑으로 하였다. 이후 忠烈王 24년(1298)에 '慶尙晋安道'라 하였다.[14]

조선시대는 초기에 顯妃(康氏)의 내향이라고 하여, 한때 '晋陽大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太祖 1년, 1392) 太宗 2년(1402)에 진양을 다시 '晋州'로 개칭하고 대도호부를 '牧'으로 하였다. 조선전기인 世宗 19년(1437), 당시의 진주목 관할은 반성현·영선현·악양현·개화부곡·살천(시곡)부곡·흥선도였으며,[15] '晋州牧'이라는 큰 고을로 서부경남 일대를 총괄하였다. 壬辰倭亂(宣祖 25년, 1592) 이듬해(1593)에 벌어진 진주성전투에서 왜군에 의해 6만 軍官民이 장렬하게 순절하고 진주성이 함락되었으며, 宣祖 37년(1604)에 合浦(지금의 馬山市)의 慶尙道右兵營이 임진왜란으로 焚蕩되자 矗石城(진주성)으로 옮겨 節度使로 하여금 牧使를 겸하게 하였으나, 仁祖 13년(1635)에 다시 병영을 나누어 옮기고 목사로 환원하였다.[16]

(4) 近·現代

조선말기인 高宗 32년(1895)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23府制'로 개편하면서, 진주는 '晋州府'가 되고, 진주목은 '晋州郡'으로 개칭되어 군수를 두게 된다. 이듬해인 1896년 도청이 부산에서 진주로 이전, 도청소재지가 되어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이르면 진주지역은 인구가 많고 상공업이 발

---

13) 『高麗史』 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晋州條 참조.

14) 위의 『地理志』 二 序文 참조.

15) 『世宗實錄』 卷一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晋州牧 참조.

16) 『輿地圖書』 <慶尙道-晋州> 建置沿革.
(상략)……宣祖癸卯以合浦兵營亂 後焚蕩移設 于此以節度使兼牧使 仁祖乙亥 分州營還置牧使……(하략).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달되어 財力이 풍부한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起債權이 인정된 지정면[17](당시 전국에 **23**개)으로 되었으며, **1925**년 진주군에 있던 도청이 다시 釜山府로 이전하였으며, **1931**년 지정면인 晋州面이 邑으로 승격하였고, **1939**년에는 晋州邑이 晋州府가 되었다. 해방 이후인 **1949**년 府가 市로 개칭되어 市長을 두고, 행정구역은 **17**町 **12**里 **37**洞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인접한 晋陽郡과 里·洞의 통폐합을 거치면서, **1995**년 도농통폐합으로 진주시와 진양군이 합쳐져 통합시인 晋州市가 되었다.

2) 진주시 역사관련 文獻資料

지금까지 언급된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들의 역사를 文獻資料를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史料 『 』 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도 역시 **12**國으로 되어 있다. 또 작은 여러 別邑이 있는데(이들 모두에는) 제각기 渠帥가 있다. (그 중에서) 세력이 가장 큰 곳은 그 우두머리를 '臣智'라 하고, 그 다음에는 '險側'이라 하였으며, 다음에는 '樊濊'가 있고, 다음에는 '殺奚'가 있으며, 다음에는 '邑借'가 있다…(중략)…弁辰古資彌凍國·弁辰古淳是國……(하략).[18]

史料 『 』 雜志 地理

康州는 神文王 **5**년(**685**), 당나라 垂拱 元年, 居陁州를 분할하여 菁州를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강주로 개칭한 것인데, 지금의 晋州이다. 이 州에 속한 縣은 둘인데, 嘉壽縣은 원래 加主火縣을 景德王이 개칭한 것으로,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屈村縣은 지금 미상이다.[19]

史料 『 』 志 第 地理

晋州牧은 원래 백제의 居列城이었는데, ('居陁'라고도 한다) 신라 文武王 **2**년(**662**)에 빼앗아서 州를 설치하였고, 神文王 **4**년(**684**)에 거타주를 나누어서 菁州總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은 康州라고 고쳤는데, 惠恭王이 다시 청주로 고쳤다. (고려) 太祖는 다시 康州로 고쳤고, 成宗 **2**년(**983**)에 처음으로 전국에 **12**

---

17) '指定面'은 **1917**년 일제가 시행한 제도로 이후 **1931**년부터 시행되는 邑制에 의해 邑으로 승격되는 面을 말한다. **1917**년 처음 지정이 있었을 때 전국적으로 **23**개 면이 해당되었으나, **1920**년 이후 지정면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정면은 보통의 면과는 처우를 달리 받았다. (『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18)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傳.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중략)…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하략).

19)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康州 神文王五年 唐垂拱元年 分居陁州 置菁州 景德王改名 今晋州 領縣二 嘉壽縣 本加主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屈村縣 今未詳.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개 牧을 설치하면서 진주가 그 중 하나가 되었으며, **14**년**(995)**에 **12**개 州 節度使를 두면서 晋州定海軍이라고 불렀으며, 이를 山南道에 소속시켰다. 顯宗 **3**년**(1012)**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안무사로 하였으며, **9**년**(1018)**에 牧으로 정하여 **8**개 牧 중 하나가 되었다. 晋康**(**成宗이 정한 명칭이다**)** 또는 菁州·晋陽이라고도 부른다…**(**중략**)**…이 주에 소속된 郡이 **2**개이며, 縣이 **7**개, 그리고 그 관할 하에 知事郡이 **1**개, 縣令官이 **3**개 있다.[20]

史料 『　　』 ： 地理志 慶尙道 晋州牧

晋州牧 **:** 백제의 거열성이었던 것을 신라 文武王 **2**년**(**癸亥, **662)**에**-**곧 唐나라 高宗 龍朔 **2**년이다**-**이를 취하여 州로 삼았다. 神文王 **4**년**(**乙酉, **684)**에**-**곧 唐나라 垂拱 元年이다**-**居列州를 승격시켜 菁州로 만들고 總管을 설치하였다. **(**거열은 일명 居陁라고도 한다**)** 景德王이 康州로 고쳤으나, 惠恭王 때 다시 菁州로 하였다. 고려 太祖 때 다시 康州로 고쳤으며, 成宗 **2**년**(**癸未, **983)**에 처음으로 **12**牧을 설치함에 곧 이 중의 하나가 되었다. 同王 **4**년**(**乙未, **985)**에 **12**州 節度使를 설치하고, 晋州定海軍節度使로 불렀다. 顯宗 **3**년**(**壬子, **1012)**에 節度使를 폐하고, 安撫使로 하였다. 同王 **9**년**(**戊午, **1018)**에 **8**牧을 정할 때 晋州牧이 되어 **8**牧의 하나가 되었다. 本朝**(**조선**)**에서는 太祖 元年**(**壬申, **1392)**에 顯妃康氏의 내향으로써 승격되어 晋陽大都護府로 승격하였다가, 太宗 **2**년**(**壬午, **1402)**에 다시 晋州牧으로 환원되었다. 屬縣은 셋이다…**(**중략**)**…戶口는 **1,628**호이며, 人口는 **5,906**명이다……**(**하략**).**[21]

史料 『　　』 ： 晋州牧

동쪽으로 咸安郡 경계까지 **67**里이고, 鎭海縣 경계까지 **79**里이고, 남쪽으로 泗川縣 경계까지 **28**里이고, 固城縣 경계까지 **66**里이고, 서쪽으로 丹城縣 경계까지 **38**里이고, 昆陽郡 경계까지 **27**里이고, 河東縣 경계까지 **67**里이고, 전라도 光陽縣 경계까지 **96**里이고, 북쪽으로 三嘉縣 경계까지 **45**里이고, 宜寧縣 경계까지는 **40**里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866**里이다.

〔建置沿革〕본래 백제의 居列城**-**居陁라고도 한다**-**이었는데, 신라 文武王이 빼앗아서 州를 설치하였다. 神文王은 거타주를 분할하여서 晋州摠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은 康州로 고쳤다. 惠恭王이 다시 菁州로 고쳤다. 고려 太祖는 또 강

---

20)『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晋州牧 本百濟居列城 一名居陁 新羅文武王二年取而置州 神文王四年 分居陁州置菁州摠管 景德王改爲康州 惠恭王復爲菁州 太祖又改康州 成宗二年 初置十二牧州其一也 十四年 置十二州節度使 號晋州定海軍屬山南道 顯宗三年 廢爲安撫使 九年定爲牧 爲八牧之一 別號晋康**(**成廟所定**)** 又號菁州 又號晋陽…**(**중략**)**…屬郡二 縣七 領知事郡一 縣令官三.

21)『世宗實錄』卷一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晋州牧.
晋州牧 百濟居列城 新羅文武王二年癸亥 卽唐高宗龍朔三年 取以爲州 神文王四年乙酉 卽唐垂拱元年 陞居列州 爲菁州置摠管 居列一名居陁 景德王改爲康州 惠恭王復爲菁州 高麗太祖又改康州 成宗二年癸未初置十二牧 卽其一也 乙未 置十二州節度使 號晋州 定海軍節度使 顯宗三年壬子 廢節度使 改爲安撫使 戊午 定爲晋州牧 爲八牧之一 本朝 太祖元年壬申 以顯妃康氏內鄕 陞爲晋陽大都護府 太宗二年壬午 還爲晋州牧 屬縣三…**(**중략**)**…戶一千六百二十八 口五千九百六……**(**하략**),**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주로 고쳤으며, 成宗 **2**년**(983)**에는 牧을 설치하였다가, **14**년**(995)**에 晋州라 고쳐서 節度使를 설치하고 定海軍이라 칭하며 山南道에 예속시켰다. 顯宗이 安撫使로 고쳤으며, 뒤에 **8**牧의 하나로 정하였다. 本朝**(**조선**)**에서는 太祖가 顯妃의 內鄕이라 하여 晋陽大都護府로 승격시켰는데, 太宗 때에 이르러 지금의 명칭으로 고쳐 牧으로 만들었다. 世祖朝에는 鎭을 설치하였다.

〔郡名〕居列城·居陁·菁州·康州·晉陽·菁川·晉山·晉康·定海軍이다.

〔城郭〕矗石城 **:** 州의 남쪽 **1**리에 있다. 석축인데 둘레가 **4,359**척이며, 높이는 **15**척이다. 성 안에 우물과 샘이 각 셋이 있고 軍倉이 있다.

〔烽燧〕臺方山烽燧 **:** 州 남쪽 **114**리에 있다. 남쪽으로 남해현 錦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角山에 응한다. 望晋山烽燧 **:** 남쪽으로 사천 鞍岾에 응하고, 북쪽으로 廣濟山에 응한다. 角山烽燧 **:** 州 남쪽 **76**리 지점에 있다. 남쪽으로 대방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곤양 牛山에 응하며, 북쪽으로 사천 안점에 응한다. 廣濟山烽燧 **:** 州 북쪽 **31**리에 있다. 남쪽으로 망진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단성 笠岩山에 응한다.**22)**

史料 『　　』 嶺南 晉州

〔建置沿革〕본래 백제의 居列城**(**일명 居陁라고도 한다**)**이었는데, 신라 文武王이 취하여 州를 설치하였고, 王**23)**이 거타주를 나누어 晋州總管을 설치하였으며, 敬王**(**景德王**)**이 康州로 고쳤는데, 惠恭王이 다시 菁州로 하였다. 고려 太祖가 다시 康州로 고쳤으며, 成宗 **2**년**(983)**에 牧을 설치하고, **14**년**(995)**에 진주에 節度使를 설치하여 定海軍이라 부르고 山南道에 속하게 하였다. 顯宗이 고쳐 安撫使로 되었다가, 후에 **8**牧을 정할 때 그 하나가 되었다. 本朝**(**조선**)** 太祖 때 顯妃**(**康氏**)**의 내향이라 하여 晋陽大都護府로 승격되었으나, 太宗 때 다시 지금의 명칭으로 되고 牧으로 하였다. 世祖 때 鎭營을 설치하였다.**(**이상의 것들은 『輿地勝覽』을 보라**)** 宣祖 때 壬辰倭亂으로 合浦**(**昌原의 舊號이다**)**가 焚蕩되어 형태가 없어졌는데, 矗石城의 형세가 험고하여 體察使 李德馨의 啓請에 의하여 甲辰年**(1604)**에 이곳으로 병영을 옮기고 이에 節度使로 하여금 牧使를 겸하게 하였는데, 그 때에 節度使는 곧 李守一이었다.

---

22)『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 <晋州牧>.
晋州牧 **:** 東至咸安郡界六十七里 至鎭海縣界七十九里 南至泗川縣界二十八里 至固城縣界六十六里 西至丹城縣界三十八里 至昆陽郡界二十七里 至河東縣界六十七里 至全羅道光陽縣界九十四里 北至三嘉縣界四十五里 至宜寧縣界四十里 至丹城縣界四十七里 距京都八百六十六里.
〔建置沿革〕本百濟居列城 一名居陁 新羅文武王取而置州 神文王分居陁州置晉州摠管 景德王改康州 惠恭王復爲菁州 高麗太祖又改康州 成宗二年置牧 十四年改晉州置節度使 號定海軍隸山南道 顯宗改安撫使 後定爲八牧之一 本朝 太祖以顯妃內鄕 陞爲晉陽大都護府 太宗朝復今名爲牧 世祖朝置鎭.
〔郡名〕居列城·居陁·菁州·康州·晉陽·菁川·晉山·晉康·定海軍.
〔城郭〕矗石城 在州南一里 石築 周四千三百五十九尺 高十五尺 內有井泉各三 有軍倉.
〔烽燧〕臺方山烽燧 在州南一百十四里 南應南海縣錦山 北應角山 望晉山烽燧 南應泗川鞍岾 北應廣濟山 角山烽燧 在州南七十六里 南應臺方山 西應昆陽牛山 北應泗川鞍岾 廣濟山烽燧 在州北三十一里 南應望晉山 北應丹城笠巖山.

23) 여기에서는 그냥 '王'으로 나오는데 다른 사료들을 살펴 볼 때, 신라 神文王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인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州名〕居列城・居陁・菁州・康州・晉陽・菁川・晉山・晉康・定海軍이다.[24]

3) 진주시 지역의 遺蹟과 文化

진주시 일대는 智異山과 南江이라는 천연적인 자연환경 때문에 빼어난 絶景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선사시대의 유적지들이 다양하게 산재한 곳이며, 古淳是國과 古寧伽倻의 시대부터 존재한 古都이자 서부경남 지역의 중심지로서 忠義・文化・예술의 고장으로 이름나 있으며, 약 **100**건이 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몇 가지로 분류하여 요약, 정리하면 아래의 **[표 1~4]**와 같다.[25]

(1) 城郭과 烽燧

지금까지 남아 있는 군사시설물로는 城郭과 烽燧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군사시설물을 일컬어 '關防'이라고 한다. 진주시의 경우, 영호남을 연결하는 서부경남의요충지이자 내륙진출로의 관문으로서 고대부터 각 국의 치열한 접전장이 되었던 지역이다. 특히 임진왜란 때는 '진주성전투'가 벌어진 곳으로서, 고대의 古城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兵營이었던 矗石城(지금의 진주성) 등의 유적들이 잘 남아 있다.

[표 1] 진주시 인근의 城郭

연번	명칭	소재지	문화재지정여부	비고
1	晋州城	본성동 및 남성동 일원	사적 제118호	일명 矗石城 / 邑城
2	傳 松臺山城	대곡면 대곡리 산34-2	도기념물 제244호	竹訪山城
3	鵲堂山城	일반성면 대천리		
4	防禦山城	지수면 청원리		고려

---

24) 『慶尙道邑誌』<嶺南 晉州>.
〔建置沿革〕本百濟居列城 一名居陁 新羅文武王取而置州 王分居陁州 置晋州總管 敬王改康州 惠恭王復爲菁州 高麗太祖又改康州 成宗二年置牧 十四年晋陽置節度使 號定海軍隷山南道 顯宗改爲安撫使 後定爲八牧之一 本朝 太祖以顯妃內鄕 陞爲晋陽大都護府 太祖朝復今名爲牧 世祖朝置鎭營 以上見輿地勝覽 宣祖朝壬辰倭亂 以合浦 昌原舊號 焚蕩無形 矗石城形勢險固 體察使李德馨 啓請 甲辰移兵營于此 以節度使兼牧使 其時節度乃李守一也.
〔州名〕居列城 居陁 菁州 康州 晉陽 菁川 晉山 晉康 定海軍.

25) 晋州市에 산재한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文化遺蹟分布地圖-晋州市』(晋州市・慶尙大學校博物館, **2003**)를 중심으로 여타의 보고서 및 자료들을 참고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표 2] 진주시 인근의 烽燧

연번	명칭	소재지	문화재지정여부	비고
1	廣濟山 烽燧臺	명석면 덕곡리 산1	도기념물 제158호	조선
2	望晉山烽燧	망경남동 망진산		조선
3	臺方山烽燧	『慶尙道邑誌』<嶺南-晋州> 참조		
4	角山烽燧	상동		

(2) 진주시의 寺刹 및 佛敎文化財

진주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사찰들에 대해서는『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輿地圖書』,『慶尙道邑誌』,『嶠南誌』등에 명칭 및 지명이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에도 雙國寺 등의 전통사찰을 비롯한 보물 및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표]**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진주시의 불교문화재 관련

연번	명칭	소재지	문화재지정여부	비고
1	丹城 石造如來坐像	망경동 산3	보물 제371호	통일신라
2	龍巖寺址 浮屠	이반성면 용암리 219	보물 제372호	고려
3	龍巖寺址 石佛	이반성면 용암리	도유형문화재 제4호	고려
4	三仙寺 高麗銅鐘	상봉서동 878-1	도유형문화재 제55호	고려
5	平居洞 石造如來坐像	평거동 391-1	도유형문화재 제67호	고려
6	二峴洞 三層石塔	이현동 316	도문화재자료 제270호	
7	上坪洞 石造如來立像	상평동 삼현여고	도문화재자료 제271호	고려
8	蓮華寺	옥봉북동 449	전통사찰 제92호	
9	雙國寺	남성동 진주성내	전통사찰 제70호	고려
10	義谷寺	상봉동 415	전통사찰 제69호	조선
11	상봉동 石佛坐像	상봉동		고려
12	龍巖寺址	이반성면 용암리 207		고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3) 진주시의 鄕校, 門樓, 書院, 齋·樓·祠, 臺 유적관련[26]

[표 4] 진주시의 鄕校, 門樓, 書院, 齋·樓·祠, 臺 유적관련

연번	명칭	소재지	문화재지정여부	비고
1	晋州鄕校	옥봉동 232-1	도유형문화재 제50호	창건시기 고려
2	嶺南布政司 門樓	남성동 73-11	도문화재자료 제3호	
3	北將臺	남성동 167	도문화재자료 제4호	
4	彰烈祠	남성동 212-8	도문화재자료 제5호	창건시기 조선(宣祖)
5	西將臺	남성동 214-4	도문화재자료 제6호	
6	義妓祠	본성동 500-8	도문화재자료 제7호	
7	矗石樓	본성동 500-8	도문화재자료 제8호	
8	東山齋	옥봉남동	도유형문화재 제14호	창건시기 고려(顯宗)
9	忠義祠	이반성면 용암리 116-2	도문화재자료 제61호	창건시기 조선(宣祖)
10	飛鳳樓	상봉동 887-1, 2	도문화재자료 제329호	
11	淸溪書院	남성동 168		
12	隅谷齋	사봉면 사곡리 1413		창건시기 조선(純祖)
13	鳳山祠	상봉동 897		창건시기 고려(光宗)
14	忠愍祠	남성동		창건시기 조선(孝宗)

Ⅲ. 조사내용

1. 조사대상지역 개관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1) 조사대상지역(금산면) 개관

현재의 진주시는 '1邑, 15面'의 행정구역을 갖추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큰 고을에 해당하였던 관계로 관할면적이 넓었으며, 행정구역의 변경 및 이관이 다른 지역과

26)『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下)』(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書院』(안장헌·이상해, 1999),『한국의 건축문화재7-경남편』(강명환, 1999),『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 1991) 그리고『文化遺蹟分布地圖-晋州市』(晋州市·慶尙大學校博物館, 2003)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이 외에 많은 것들은 앞의 책들을 참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중복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다.[27] 이번 조사대상지역에 해당하는 琴山面 또한 원래부터 晋州郡 지역이었다가 근래 代如村面·今山面·槽洞面의 **3**개 지역이 합쳐져 형성된 곳이다. 그러므로 이를 중심으로 위치하였던 옛 지명과 함께 이 지역을 개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금번 조사대상구역은 도시계획시설(중로 **2-36**호선) 개설공사구간으로 위치는 '琴山面 長沙里 **1556**번지 일원'이며, 조사대상 면적은 **33,371**㎡에 해당한다.

琴山面은 진주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 진성면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진주시의 여러 洞과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 문산읍과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대곡면, 집현면과 각각 접하고 있다. 지형상으로 동쪽에 비교적 높은 將軍臺山과 月牙山이 있으며, 남서쪽으로 남강과 고성군에서 흘러 온 영천강이 합류하여 면의 서쪽과 북쪽을 흐르고 있다. 주산업은 근교시설채소 농업이며, 특산품으로 단감, 배가 유명하다. 행정구역상 전체면적은 **32.80**㎢이며, 면소재지인 장사리를 포함한 **7**개 법정리, **29**개 행정리, **20**개 자연마을을 관할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5,296**가구에 인구는 **16,568**명(**2006**년 통계자료)이다.[28] 금산면은 신라 憲康王 때 건립되었다는 靑谷寺와 '진주 **8**경' 중 하나로 산세가 부드럽고 아늑한 月牙山(또는 달음산, **482m**), 신라시대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연못으로 둘레가 **5**㎞에 이르고 굴곡이 많으며, '**W**'자 형태로 되어 있어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고 있는 龍牙里 금호못 등의 문화재와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다. 특히 천년 고찰 중 하나인 靑谷寺에는 많은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재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금산면 문화재(지정문화재 중심으로) 현황

연번	명칭	소재지	문화재지정여부	비고
1	靑谷寺 靈山會 掛佛幀	금산면 갈전리 18	국보 제302호	
2	晋州 靑谷寺 木造帝釋天·大梵天倚像	금산면 갈전리 18 청곡사	보물 제1232호	
3	靑谷寺 三層石塔	금산면 갈전리 청곡사 내	도유형문화재 제5호	
4	靑谷寺 大雄殿	금산면 갈전리 청곡사 내	도유형문화재 제51호	
5	晋州 靑谷寺 金剛力士像	금산면 갈전리 청곡사 내	도유형문화재 제348호	
6	晋州 靑谷寺 靈山會上圖	금산면 갈전리 청곡사 내	도유형문화재 제349호	
7	靑谷寺 業鏡殿	금산면 갈전리 청곡사 내	도문화재자료 제139호	
8	浮査亭	금산면 가방리 659	도문화재자료 제197호	

27) 통합 진주시의 面단위 행정구역명 변천관련은『경상남도 연구』의 도표**(pp,45~47)**에 잘 정리되어 있어 이를 참조하면 된다.**(**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28) 진주시청 <금산면 홈페이지 통계현황> 참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9	晋州 桂垣里 高麗古墳	금산면 계원리 산164	도문화재자료 제222호	
10	李退溪碑	금산면 용아리 금호지		

역사적으로 조선초기에는 晋州牧 東面 관할로 琴山里·代如村里·月牙彌里·槽洞里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조선중기 壬辰倭亂 이후에는 금산리에 대여촌리와 월아미리가 병합되었다. 조선후기 純祖 **32**년**(1832)**, 대여촌리가 다시 분리되었다. 조선말기 高宗 **1**년**(1864)**에 모두 面으로 되었다.**(**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여러 기록들에는 '今山'과 '琴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군·면통폐합 개편으로 기존 **3**개 面들이 통폐합되어 비로소 지금 명칭인 '琴山面'으로 개편되었다. 이후의 자료인『嶠南誌』<晋州郡> 邑面町里에는 晋州邑을 비롯한 여러 面의 명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琴山面 관할의 葛田里와 東沙里를 포함한 **7**개 里들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29] 이러한 행정체제에는 큰 변화없이 해방 이후 현대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1987**년 大谷面 臥龍里 일부를 加芳里로 편입하고, 가방리 일부를 대곡면 丹牧里로 이속, 集賢面 德梧里 일부를 長沙里로 편입하는 등 일부 행정구역 개편만 있었을 뿐이며, 문산읍과 마찬가지로 **1995**년 도농통폐합조치에 따라 진주시와 진양군이 합쳐져 현재의 진주시가 형성되면서 진주시 관할이 되었다.

2)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⑴ 양달유적**(**금산면 장사리**)**

금산면 소재지에서 가방리로 연결되는 도로변 서쪽에 위치한 독립 구릉의 정상부와 과수원 일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이 채집되었다. 채집유물로 보아 매장유구나 생활유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05**년 동아문화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신라시대 골호 **1**점이 출토되었다.

⑵ 하덕의유적**(**금산면 장사리**)**

남강변에 형성된 들판에 있는 하덕의마을의 동북쪽에 위치한다. 마을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물매등' 주변에 칠성바위로 부르는 바위 **7**개가 있었으며 이곳에서 마제석검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후 경지 정리시 파묻어 현재는 볼 수 없으며 주변에서 무문토기편만이 채집된다. 채집유물과 주민들의 전언을 참고하면 이곳 일대에 청동기시대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9)『嶠南誌』卷之五十三 <晋州郡> 邑面町里條.
(상략**)**……琴山面 中川里 松栢里 東少里 葛田里 龍牙里 長沙里 加芳里……**(**하략**).**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⑶ 윗덕의유적(금산면 장사리)

하덕의마을의 남서쪽 들판 가운데에 있는 윗덕의마을의 북쪽에 위치한다. 현재 이 곳 일대에서는 유적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오래 전 경지 정리시 이 곳 일대에서 석관묘 **2**기가 발견되고 내부에서 석촉 **20**여점과 석검 **1**자루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런 전언을 참고할 때 이 곳 일대의 들판에 청동기시대의 매장유구가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⑷ 청천지석묘(금산면 중촌리)

청천마을에서 윗덕의 마을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다. 지석묘로 추정되는 길이 **1.5m,** 폭 **1.2m,** 두께 **0.5m** 의 대형 바위가 도로에 장애물이 될 정도로 자리잡고 있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 바위는 옛날부터 이 곳에 있었던 것으로 신성시 여겨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한다.

⑸ 중천리유적(금산면 중천리)

중천마을 북쪽과 금산초등학교 서북쪽에 형성된 야산에 위치하며 삼국시대 토기편이 광범위하게 산포하고 있다. 관련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채집되는 유물이 소량인 것으로 보아 단순 유물산포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⑹ 중천리요지(금산면 중천리)

금산면 소재지에 있는 농협건물 뒤에 위치하며 등고선과 직교되게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진 登窯이다. 현재 대부분 파괴되고 소성부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에서는 가마의 벽체와 목탄, 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들이 다량으로 발견된다.

⑺ 남성유적**1**(금산면 가방리)

가방리 남성마을 사이로 동서로 길게 뻗은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와 어망추 삼국시대의 토기편이 산포해 있다. 관련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채집유물로 보아 생활유구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⑻ 남성유적2(금산면 가방리)

남성소류지의 서쪽 야산 사면에 위치하며 과수원으로 개간되고 있는 곳에서 삼국시대의 단경호, 발형기대, 대옹편 등이 광범위하게 산포하고 있다. 채집유물로 보아 5세기대의 목곽묘를 중심으로 하는 매장유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개간과정에서 많은 유구가 파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⑼ 중천리 공동주택 부지내 유적(금산면 중천리)

2006년 9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재)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청동기시대의 석곽묘와 수혈유구와,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및 고상건물지 등이 조사되었고, 고려~조선시대 유구로는 수혈주거지, 적심건물지, 삼가마, 기와가마 등 다양한 생활유구가 복합적으로 조사되었다.

2. 고고·역사분야의 조사

조사대상지역은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556번지 일원으로 신당골 및 장사리 들녘을 포함한 지역이다. 이 일대의 지형은 남강과 직교하여 1차 지류가 흐르는 곡간 하류역 左岸의 침식성 저구릉지로 조사지역은 저구릉지의 곡부 및 북서쪽 구릉 말단부에 해당한다.

금번,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면적은 33,371㎡(약 10,095평)이며, 현장조사는 도시계획시설(중로 2-36호선) 개설공사구간에 대하여 전구간을 도보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현재 주로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업시행 구간의 북동쪽 지점은 하우스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결과, 신당골 서쪽 구릉지점에서 총 7기의 근대분묘가 확인되었는데 이중 2기가 현 조사구간에 포함된다. 또한 조사구역 전구간에 걸쳐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토기편 및 조선시대 자기편이 다량 수습되고 있어, 이 일대에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 유구가 유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사회·민속 및 지명유래 분야의 조사

1) 진주시(조사대상지역 중심으로) 民俗과 문화행사

민속은 각 지역의 민간신앙·세시풍속·전통놀이·구비전승·제례행사 등 일상생활에서 전해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의미가 아주 광범위하다. 그리고 다양한 민속행위는 그 지역만이 가지는 의식이나 특성, 생활양식 등을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내포하고 있다. 진주시 역시 다양한 민속행위와 놀이가 전해오고 있으니, 현재 전승되고 있는 것에는 지역성을 반영한 것이 많고, 문화·예술의 고장답게 民俗文化행사 등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중 무형문화재를 비롯하여 제례의식과 놀이, 민요와 설화, 동제의 사례 및 문화행사를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30]

진주시의 특색 있는 전승놀이로는 중요무형문화재인 <진주 검무(제12호)>와 <진주·삼천포 농악(11-가호)>을 들 수 있다. <진주 검무>의 특징은 여러 춤꾼들이 戰複을 입고 전립을 쓴 채 칼을 휘저으며 춤을 추기 때문에 속칭 '칼춤'이라고도 부르며, 짜임새는 8명의 춤꾼들이 "도드리→느린타령→빠른타령→느린타령→아주 느린타령"의 장단 흐름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화사한 춤사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진주·삼천포 농악(11-가호)>은 12次(마당) 36가락의 짜임새로 흥겹게 구성된 농악이다. 또한 도무형문화재로 <진주 抛毬樂舞(도무형문화재 제12호)>와 <진주 한량무(제3호)>가 있다. <진주 포구락무>는 채구[용알·공]를 毬門의 風流眼에 던져 넣는 놀이에 음악과 무용이 첨가된 궁중가무의 하나로 진주지역으로 전해오면서 그 나름대로의 의상·치장·창법이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징을 갖추게 되었으며, 짜임새는 편을 나누어 싸우는[편싸움] 형식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진주 한량무>는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을 소재로 한 춤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내용은 한량과 중이 한 여인을 유혹하는 내용을 춤으로 묘사한 무용극이다. 이 밖에 <오광대놀이>와 <소싸움>, <문산 줄다리기(줄다루기)>가 전승되고 있다. <오광대놀이>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별다른 특징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소싸움>의 경우, 그 연원이 고대 신라가 백제를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전승잔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고려말 이후부터 진주지방을 중심으로 자생한 고유 민속놀이로 현재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산 줄다리기(줄다루기)>는 여타 지역의 화합과 풍년을 기원하며 단순한 승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여 줄싸움이 끝나고 나면 줄을 끊어 가는데, 이는 풍년과 자식을 얻는데 효염이 있다고 믿고 있다 때문이며, 기우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행해지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 달집태우기, 땅따먹기, 제기차기, 꽃놀이, 팽이(공개)치기 등을 비롯하여 여러 민간신앙과 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진주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는 <개천예술제>를 들 수 있는데, 1949년 영남예술제로 시작된 전국 지방문화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진주 남강유등축제> 및 <진주논개제> 등이 있다.

또한 각종 洞祭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동제는 흔히 '洞虞祭'라고도 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승의식이다. 주로 마을의 무사태평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이며, 전체 주민이 함께 참례하는 합동의식이다. 진주지역 인근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제의 종

30) 진주시에 전승되고 있는 民俗에 관한 자료는 광범위하다. 그러므로『韓國民俗大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慶南民俗資料集』(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下)』(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9), <진주시청 홈페이지> 자료 등에 보고된 것들을 참고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류를 살펴보면, 木神祭·堂山祭·立石祭·城隍堂祭·長丞祭 등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경우가 상봉동의 동신제이며, 그 유래도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마다 음력 정월보름날 자정에 당산나무 옆에 있는 당집에서 제를 지낸다.

그리고 전승되고 있는 많은 민요와 설화, 전설은 그 근원과 취지가 불분명하고 내용의 혼합 분류가 어려운 잡설과 잡가도 많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민요로는 <농부가>(논농사 및 밭농사 관련), <나무꾼 노래>, <베틀가>, <삼 삼기 노래>, <목화 따는 노래>, <사랑요>, <시집살이 노래> 등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설화 및 전설의 경우, 지명과 인물들이 관련되어 다양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구뱃골[九拜谷]에 있는 한 쌍의 돌과 관련된 <鳴石(울돌 또는 운돌) 전설>(명석면 신기리)을 비롯하여 <수도자리 용두산>, <비봉산과 봉알자리>, <효성과 엄마다리>, <무학대사와 진주의 지맥>, <대나무 열매>, <개구리 바위와 龍說> 등 다양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

2) 조사대상지역의 지명유래

中川里는 본래 진주(진양)군 금산면의 지역이다. 1970년대에 농촌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중촌아래에 현대식 문화주택 마을이 하나 생겼고 공군교육사령부 이전에 따라 크게 발전하고 있다. 199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개천동·중촌동·말암동의 각 일부로서 중천리라 하였다. 199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개천동과 중촌동, 말미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중촌과 개천의 이름을 따서 중천리라 하여 금산면에 편입되었다.[31]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이상,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 2-36호선) 개설공사구간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문헌적·고고학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의 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당산 북편의 일부 조사대상지는 현재 하우스 재배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중장비를 동원하여 토사를 절치하였으므로 원지형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지역의 구릉과 연결되는 금산면 중천리일원은 2006년 (재)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유구가 확인된 지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삼국시대 토기편 및 조선시대 자기편 등을 미루어 볼 때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

31) 조사지역의 전승지명에 대해서는 한글학회, 2002, 『한국지명총람 9』 및 <진주시청 홈페이지 금산면 마을지명> 등을 참고로 정리한 것이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활 유적이 유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주)랜드플러스씨앤디가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중로 2-36호선) 개설공사구간에 해당하는 33,371㎡(약 10,095평)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에 앞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존대책과 공사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조사 대상지역은 조사 전까지 원상태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조사대상지역내에 분포하고 있는 2기의 근대 분묘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이전에 이장 등의 행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참고문헌】

『三國史記』(中宗 7년;1512년 본)
『高麗史』(復刻本)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成宗 23년;1492년, 癸丑字 活字本)
『輿地圖書』
『慶尙道邑誌』
『增補文獻備考』(純宗, 隆熙 2년;1908년 본)
『擇里志』
『燃藜室記述』(日帝時代-朝鮮古書刊行會・光文會 인본)
『嶠南誌』(1937년, 大邱慶文堂 活字本)
『三國志』<魏書> 東夷傳
강영환,『한국의 건축문화재』-경남편, 기문당, 1999.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1997.
慶尙南道・東亞大學校博物館,『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 慶尙南道・東亞大學校博物館, 1999.
慶尙南道・仁濟大學校 加耶文化硏究所,『晋州 貴谷洞 貴洞遺蹟』, 仁濟大學校, 1999.
金泰植,『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권상노,『韓國地名沿革辭典』, 이화문화출판사, 1994.
문화재청・서울대학교 박물관,『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Ⅰ,Ⅱ』, 문화재청, 1999.
申千湜,『晋州 平居洞 高麗 古墳群 硏究』, 경인문화사, 2002.
안장헌・이상해,『書院』, 열화당, 1999.
李柱憲,「阿羅伽耶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가야사학술심포지움, 2000.
田溶新,『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5.
晋州文化院,『晋州地名史』, 晋州文化院, 1996.
晋州市・慶南文化財硏究院,『晋州城 拱北門』, 晋州市, 2000.
晋州市・慶尙大學校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 晋州市・慶尙大學校博物館, 2003.
晋陽文化院,『晋州牧正史 1・2・3』, 晋陽文化院, 1992.
韓國古代史硏究會 편,『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1995.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慶尙南道民俗集』,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원, 1991.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화수첩』, 역민사, 2000.
韓國精神文化硏究院 편,『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上)・(下)』, 한국정신문화원, 1999.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 9』, 2002.
(재)우리문화재연구원,「진주 중천리 공동주택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전경(북→남)



도판 2. 조사대상지역 부분 전경(북→남)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3. 중천유적 전경(북→남)



도판 4. 중천리 공동주택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지역(북서→남동)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5. 근대분묘1 전경(남→북)



도판 6. 근대분묘2 전경(남→북)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7. 조사구역 남서쪽 전경(북→남)



도판 8. 조사구역 남서쪽 수습유물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9. 조사구역 북동쪽 전경(남서→북동)



도판 10. 조사구역 북동쪽 수습유물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11. 절치구간 전경(서→동)



도판 12. 절취구간 세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地表調査報告 第73輯

진주시 금산면 도시계획시설(중로 2-36호선) 개설공사구간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07년 5월 8일
발 행 일 / 2007년 5월 9일

編輯·發行 /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641-811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 B/D 401호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인 쇄 처 / 부 광 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 (055) 285-1834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